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간 논의를 해야 함.
- ④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론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 ⑤ 한글로 작성할 경우 양쪽 정렬로 정리할 것. 또한 본문의 글자 크기, 서체 등을 통일할 것.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자료를 단순히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⑥ 서론-본론-결론을 구분할 경우, 한 줄 또는 두 줄만 띄면 됨. 페이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음.

제목: ???

이름: ???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동물의 대하여 뉴스를 접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주 나오는 뉴스지만 현실에서는 인식하지 않아 유기동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보호소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있지만 그마저도 역부족 하여 유기동물을 안락사를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안락사를 존중하여 배려하며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물들의 대한 안락사는 동물들이 의사표현을 못한다는 이유로 배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유기동물의 안락사의 대하여 논증을 구성하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동물의 도덕적 고려대상.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안락사의 윤리적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인간의 생명에만 고려되어 있고 동물들의 생명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 논문인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에서

싱어는 모든 이익관심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그의 논의를 시작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모두 하나로 계산되어야지, 그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는 공리주의의 형식적 원리이다. 싱어는 벤담이 이야기한 "중요한 것은 이성을 갖는 것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이다." 라는 기준으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다.1)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도 도덕적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종무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가톨릭대학원 석사논문 2014 26쪽

제2절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

2020년도에 유기동물의 수는 13만 401 마리 이며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현황]

(단위 :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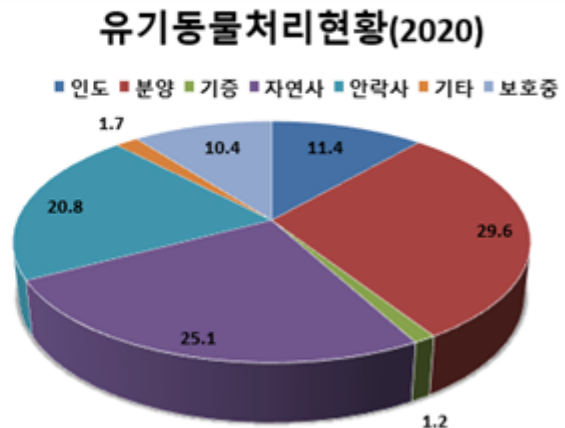
축종	계	인도	분양	기증 (양자호출)	자연사	안락사	기타*	보호중
개	95,261	14,371	26,394	1,155	15,813	25,263	532	11,733
		15.1%	27.7%	1.2%	16.6%	26.5%	0.6%	12.3%
고양이	33,572	360	11,099	333	16,674	1,756	1,612	1,738
		1.1%	33.1%	1.0%	49.7%	5.2%	4.8%	5.2%
기타 (토끼 등)	1,568	110	1102	22	187	43	27	77
		7.0%	70.3%	1.4%	11.9%	2.7%	1.7%	4.9%
계	130,401	14,841	38,595	1,510	32,674	27,062	2,171	13,548
		11.4%	29.6%	1.2%	25.1%	20.8%	1.7%	10.4%

※ 기타 : 포획불가, 방사(예 : 고양이) 등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연도별 현황]

처리 방법	비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도	15.2	14.5	13.0	12.1	11.4
분양	30.4	30.1	27.6	26.4	29.6
기증	1.6	1.9	1.8	1.4	1.2
자연사	25.0	27.1	23.9	24.8	25.1
안락사	19.9	20.2	20.2	21.8	20.8
기타	1.7	1.5	1.8	1.7	1.7
보호중	6.2	4.7	11.7	11.8	10.4



2020년도 기준 유기동물의 안락사의 비율은 20.8%나 된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키워서 기르다가 버려지고 유기동물의 의사없이 안락사를 당하는 비율이 20.8%나 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면 20.8%나 되는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제3절 유기동물의 안락사 방법

유기동물의 안락사의 방법도 매우 불합리 적이다.

논문인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에서

많은 동물 보호소에서 근육이완제인 썩시닐 콜린을 안락사 약물로 사용한다. 그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약물을 근육주사하여 쉽게 유기동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썩시닐 콜린 만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동물은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의사무국)는 마취를 한 이후에는 근육이완제를 투여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락사의 약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배려 없이 고통스럽게 안락사를 한다.

제3장 결론

인간이 동물들을 더 배려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애초에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하며 정책을 바꿔야만 할 것 이다. 예를 들며 유기동물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유기 시켰을 경우 벌금을 높이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식 등의 조치를 하고 나라에서도 조치를 취하여 유기동물의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